

# 평균 나이 73세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가야금 도전기

## 호미자루 쥐고 농사일하던 손으로 가야금 연주... 여성 즐거워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가야금악대

5월 31일,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주관한 '대련시 제 30회 조선족 민족문화예술 전시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막식 정품 문예공연이 한창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단아한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11명 여성이 각기 가야금을 안고

무대에 올랐다. <고향의 봄>이라는 가야금합주는 퍼플새가 노래하고 제비가 춤을 추는 봄날을 떠올리게 했고 가야금의 합주와 어우러진 무용은 천여명 관중들의 환결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가야금 연주를 선보인 이들이 평균 나이 73세가 넘는 할머니들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몰랐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들의 도전은 올해 4월에 시작되었다.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윤순애(73세)는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쾌락분회의 김정애(76세)와 함께 몇년전 통소와 단소 훈련반에 다녔던 로인들을 조직하여 가야금악대를 결성하기로 결심했다.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전경

남선생은 이들의 열정에 감동되어 가까이 지도를 맡아주었고 로인들은 각자 가야금을 구입했다.

가야금 한대의 가격이 3,000원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그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모인 저녁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악기 구입을 언급하였는데 자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막상 가야금을 손에 들고 보니 악보 읽기와 줄 튕기기, 박자 맞추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달 동안 로인들은 전종남선생의 지도 아래 기초 음악리론부터 연주 기술까지 꼼꼼히 배웠다. 손가락이 갈라터지고 피가 났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리영숙(76세) 로인은 관절염과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면서 95세의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와중에도 훈련반에 빠짐없이 나왔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마침내 무대에서 하나된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예전에 호미자루를 쥐고 농사일을 하던 손으로 지금은 가야금을 연주하며 여생을 노래합니다.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꽃노을예술단 윤순애 단장의 자랑과 신심에 가득찬 말이다.

/ 리산민특약기자



# "홍색정신을 반드시 계승해나갈 것입니다"

## - 마록구 경찰들 흥미원조 참전 로병사 위문



5월 29일, 단오절을 맞아 길림백산변경관리지대 마록구진변경파출소 경찰들은 장백현사회복지봉사중심을 찾아 흥미원조 참전 로병사 정선영에게 위문품과 함께 따뜻한 관심을 전했다.

96세 고령인 정선영로인은 75년 전인 1950년 나라의 부름에 응해 흥미원조전쟁에 참가했다. 로인은 총탄이 비발치는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웠다. 고령이다 보니 건강이 예전같지 않아 2011년부터 장백현사회복지봉사중심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2018년 마록구진변경파출소 경찰들은 일상적인 순찰 방문 과정에 정선영로인을 알게 되었다. 그후 경찰들은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장백현사회복지봉사중심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로인의 방을 정리해드리곤 했다.

이날, 경찰들은 정선영로인의 방에서 무릎을 맞대고 쫄즈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정선영로인은 감회에 젖어 "변경 경찰들이

자식보다 더 자주 찾아와 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 왕신은 로인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문의하면서 가져온 쫄즈와 관절과약을 로인의 무릎에 붙여 주었다. 이에 감동된 로인은 "지난 몇년 동안 병원 동행부터 전구 교체까지 모든 걸 도와준 경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왕신은 "장진호전투부터 상감평전투까지, 로전사의 이야기는 평화의 소중한 밑거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쫄즈가 가마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경찰들은 로인에게 오색쫄즈를 감아드리며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다.

마록구진변경파출소 정치지도원 리봉은 "로병사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홍색정신을 반드시 계승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현관기자, 원예(袁睿), 류명양(刘明阳)



# 사평·공주령 조선족 로인들 단오맞이 봄나들이 행사

5월 28일,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와 공주령시조선족로인협회의 100여명 회원들은 사평시 산문진 벼수산장에서 '단오맞이 봄나들이 행사'를 펼쳤다.

오전 9시 30분경, 두 협회 회원들의 환결같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행사가 막을 올렸다.

사회자로 나선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정진해 당지부 서기는 간결하면서도 정열로 가득찬 개막사로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신중근 회장과 공주령시조선족로인협회 황영애 회장이 축사를 했다. 두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회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축사에 이어 두 협회에서 앞섬들여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이 이어졌다.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의 장구춤 <붉은 해 변강 비추네>는 흥쾌한 장



단오맞이 봄나들이 행사 현장

구소리와 우아한 춤사위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주령시조선족로인협회의 단체무용 <행복의 길>과 <농악무>는 행사의 분위기를

를 한껏 뜨겁게 달구었다. 경쾌한 음악에 참가자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두 협회 회원들은 즐거운 노래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점심식사 시 두 협회 회원들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며 정감을 나눴다. 식사자리에서도 민족 특색을 살린 노래와 춤판이 벌어지며 조선족의 문화 특색과 예술 풍채를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로 참가자들은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기쁜 마음을 나누면서 우정의 소중한대사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두 협회는 서로 교류를 증진하고 우의를 돈독히 했다.

/ 글 김충철특약기자 / 사진 옥석규, 최정옥



# 뢰봉반 로인들 불우가정 아이들에게 사랑의 성금



5월 27일,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연길로인뢰봉반에서는 불우가정 아이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랑의 손길 보내기' 활동은 연길로인뢰봉반의 전통 행사이다. 이날 5명의 회원 대표들은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막벌이도 못하는 관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연길시제6중학교 5학년(한숙)과 외할아버지의 변변찮은 로동 소득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연길시실험중학교 흥모 학생에게 각각 1,000원씩 전달했다. 그들은 위문금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업에 열중하라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위문금 전달은 흥모 학생에게는 다섯번째, 손모 학생에게는 두번째이다.

로인뢰봉반 회원들은 "매번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느끼곤 한다."며 "차세대들의 성장을 관심하는 것은 우리 로세대들의 의무이다. 서로를 돌려하며 어머니를 털어 앞으로 이 사랑의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분분히 표했다.

/ 박철원특약기자



# 장백현 조선족 로인들, 군경민 한가족 화합의 쫄즈 나눔

단오절을 맞아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룡강분회, 탑산분회, 민주분회는 총협회의 통일적 배

치에 따라 명절을 전후하여 현지 주둔부대 장병들과 경찰들을 위문하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로인협회 회원들은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마록구진변경파출소, 중국인민해방군 무모장경찰부대를 찾

아 경찰과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함께 의미있는 교류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 할머니들은 '고향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위문을 전했다. 특히 쫄즈 만드는 과정에서 군경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진정한 '군경민 일가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로인들의 아리랑 공연과 군경들과 함께하는 율놀이, 땀땀치기 체험 등이 진행되며 현장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한 장병은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 같아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문을 넘어 민족화합의 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의 이번 단오절 위문 활동은 군경민간의 우정과 단결을 도모하고 민족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여 사회화합의 호평을 받았다.

/ 최창남



# 안도 변경 경찰, 길 잃은 '새끼곰' 구조

"길가에 혼자 누워있는 새끼곰을 발견했을 때 정말 안스러웠습니다..."

5월 24일, 연변변경관리지대 안도대대 쌍목봉변경검사소 경찰들은 G331 국도 연선 순찰중 길 잃은 새끼 불곰 한마리를 구조했다.

이날 순찰하던 경찰들은 길가에 혼자 버려져있는 새끼곰을 발견하고 즉시 주둔지 동물보호부문에 연락했다. 경찰들이 새끼곰에게 먹이를 먹인 후 초보적인 검사를 진행해보니 다행히 신체적 외상은 없었다. 이어 그들은 가까운 동물보호부문의 사업 일군들과 함께 새끼곰을 주둔지 동물구조사로 이송하고 구체적인 구조 상황을 등록했다.

장백산자연보호관리중심 야생동물구조사 관계자는 이 새끼곰은 국가 2급 보호동물인 불곰으로 추정되며 태어난 지 약 3개월 정도로 보



인다고 전했다. 현재 새끼곰은 동물구조사에서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려 자연식사로 보내질 예정이다.

한편 변경검사소 경찰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근 주민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출몰 시 대처 요령 등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락처를 공유해 "야생동물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즉시 검사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리전기자

